

특집 Ⅱ



ITU 아·태지역 전기통신 개발회의 결과 및 향후전망 - Asia TELECOM 93

김영수 사무관/체신부 통신정책실



1. 회의의 개최배경 및 성격

전기통신은 21세기 고도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분야로 국가경제 사회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통신부문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통신 수요 충족은 물론 고도화된 정보통신 수요까지도 충족시켜 주고 있는데 반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 인력 및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통신수요 충족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통신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1989년 니스 전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권위원회와 차기전권위원회 사이 기간 동안 세계 개발회의와 지역별(아·태, 아프리카, 유럽, 미주지역) 지역개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회의는 아·태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지역개발회의로 세계 54개국 대표 233명, 14개 국제기구 대표 65명등 세계 각국의 전기통신 주관청, 전기통신사업자, 기기 제조업체, 연구소 등의 많은 전기통신 관계전문가가 참가하여 15개의 결의안과 4개의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6일간 회의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체신부, 한국통신, 통신개발연구원의 실무자급 3명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회의의 각종 결의안이나 권고안 제정시 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을뿐 아니라, 이번 회의를 통하여 아·태 국가들과의 협력증진에 노력하였다.

2. 주요회의의 결과

6일이라는 회의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태지역 개발회의 전체회의 산하에 분야별로 정책, 전략위원회, 기술표준위원회, 인력개발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야별 소관 업무를 협의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6일간 처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협력을 위한 조정기구

ITU는 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조정기구로서 아·태지역 ITU회원국과 관련 국제 지역기구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설치토록 하고, 제1차 조정회의를 세계 전기통신개발회의(1994년 3월, 아르헨티나) 이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ITU는 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이행 정도와 아·태지역에서의 ITU 활동에 관한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적어도 1년에 한번이상 회원국 및 관련 국제·지역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아·태지역을 위한 전기통신 정책 및 전략

전기통신개발을 위하여 아·태지역 ITU 회원국에게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 및 전략방향이 제시

되었다.

- 사회·경제개발에 있어서 전기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능한 한 투자 확대
- 합리적인 요금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규제와 사업기능의 분리 촉진
-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로서 지역통합을 조장하며, 세계적으로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발
- 전기통신의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 촉진
- 아·태지역 회원국에 위성, 광섬유, 이동통신과 같은 첨단 전기통신 기술이전 촉진
-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의 사용

그리고 각국의 전략 범위내에서 경제·사회 및 문화발전을 위한 전기통신부문의 개편을 촉진하는 정책과 전략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지역 회원국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ITU산하에 전기통신 정책, 전략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실무작업반은 1993년 7월부터 1994년 8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그간의 활동 및 결과 보고서를 1994년 세계개발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3) 재무전략

아·태지역 회원국에서 다양한 재무전략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원가절감 및 적절한 요금 제도를 통한 자체 수입증대로 전기통신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ITU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ODA, BOT, BLT, 합작투자 및 민영화 등 다양한 재무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 재무전략을 위한 선택 제안
- 어떤 국가가 특정전략을 채택한 사유
- 다양한 재무전략 도입을 위한 조건
- 각국 사례연구에 근거한 각 재무전략의 장·단점
- 요금제도 개편 및 원가지향요금 설정을 위한

조건

(4)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아·태지역 회원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 주민에게 보편적 서비스제공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였다.

- 모든 농촌마을당 최저 1대의 공중전화 보급
- 도시지역에 공중전화, 가입전화 보급 확대
- 도시의 상업지역과 농촌지역에 팩스, 텔렉스와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센터 설치

- 농촌지역에 라디오와 TV수신 가능지역 확대
그리고 인간생활의 존속을 위한 재해방지 전기통신시스템의 도입이 강조되었으며, ITU로 하여금 농촌지역을 위하여 주파수 공용통신, 이동통신, VSAT를 포함한 기술을 최소비용으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태지역 회원국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5) 인력자원관리 및 개발

ITU의 International Sharing System (ISS)의 범위내에서 전기통신 및 방송센터간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이 지역의 새로운 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관련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을 강화토록 하였다.

그리고 ITU와 APT 및 관련 국제·지역 기구에게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회원국을 지원토록 요청하였다.

(6) 표준화

국제표준에 관한 정보 교환과 표준 제정과정에서 이 지역내 회원국 및 관계기구의 참여 촉진을 위한 역내 표준화 활동이 강조되었다.

또한 ITU로 하여금 핸드북, 세미나/워크샵 등을 통한 국제표준의 배부, 해석, 응용 등을 촉진토

록 하였다.

(7) 전파관리

ITU로 하여금 주파수 사용료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요청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회원국에게 즉시 활용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아·태지역 통신주관청간 주파수관리, 계획 및 조정을 위한 지역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주파수 관리 및 감시방안에 대한 정보 교환
- 주파수 관리분야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 위성 시스템에 관한 등록, 조정절차, 음의 특성 TV 방송에 관한 우선 순위 부여
- 장기 주파수계획 수립, 효율적 주파수 자원관리를 위한 국가의 능력 보강
- FPLMTS와 디지털 오디오 위성방송과 같은 공동 주파수대역 사용 증진
- 주파수 정책 및 기술표준에 관하여 주파수 관리기관과 공공·민간부문을 포함한 사용자 그룹간 협력 증진

(8) 전기통신 지표

ITU 조정하에 국가별 규제, 계획, 정책 결정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국제·지역기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기통신지표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실무작업반 설치 목적은 지역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사용자, 제조업자, 데이터 제공자간 전기통신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9) 기술이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전문가 교환, 세미나 개최, 전자우편, 화상회의를 통한 연구개발기관간 기술교류를 촉구하였고, ITU와 APT, 기타 지역기구에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10) 아·태지역 저개발국가를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ITU로 하여금 저개발국가 지원을 위한 정규예산을 증액토록 요청하였고, ITU와 APT에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ITU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기통신부문의 개혁 및 개편에 관한 지원
-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유지보수 및 개선
- 농촌지역을 포함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개발
-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12) 아·태지역 개발회의 결의의 이행

아·태지역 개발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되는 제1차 아·태지역 조정회의는 아·태지역 개발회의 결의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구에서 각자의 위임 사항에 따라 작성한 세부시행 프로그램을 분석 검토하고 결과 보고서를 관계기구의 대표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조정회의의 결과에 따라 관계기구에 의하여 추진하는 활동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 전기통신 개발회의에서 재검토 될 예정이다.

3.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성과

일본은 아·태지역 통신시장 패권장악을 목표로 우정성 국제부장을 수석대표로 30명의 대표단을

파견, 참가국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지난해 소모키의 APT 사무국장 당선을 계기로 일본은 APT가 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을 위한 핵심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협력을 위한 조정기술설치 및 지역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APT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ITU로부터 APT가 아·태지역 개발회의에 있어서 ESCAP, ABU 등 타 지역기구와 구별되는 중요한 지역기구임을 인정 받음으로써 일본은 향후 APT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 다음 두번째로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원가지향적인 요금제도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APT 중심의 지역표준화 활동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호주 및 중국은 일본의 제안에 대하여 뚜렷한 대안이 없는 듯 이 지역에서의 APT의 역할을 인정하고 관망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아·태지역 개도국들은 APT로부터 기술훈련, 세미나 초청 등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4. 참가소감 및 향후전망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전기통신망의 확충 및 현대화에 주력하여 기본통신시설면에서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통신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선진국의 통신시장 개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소극적으로 국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동남아, 동구권,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통신사업의 자유화, 민영화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의 기본통신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개발도

상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ITU에 의하면 동남아지역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통신시장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전기통신분야에 1000억달러 이상 투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번 회의기간 중 일본, 미국, 호주 등 통신선진국들이 중국,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대표단을 오·만찬에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한 것은 아·태지역 시장을 둘러싸고 세계적인 통신사업자나 기기제조업체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같은 아·태지역 전기통신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아·태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를 통하여 나타난 각국의 동향 및 전략을 분석 검토하고 아국의 대책을 수립하여 1994년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리테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전기통신개발 회의에는 정부, 통신사업자, 기기제조업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Asia TELECOM 93

1. 서 론

오늘날의 전기통신은 단순한 의사전달의 매체뿐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국제화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정보 사회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분야로 그 선도적인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기통신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첨단장비를 한 자리에 소개함으로써 국제기술협력과 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고

자 하는 전기통신전시회 행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아시아 텔레콤 '93 행사가 1993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룩한 전기통신분야의 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 텔레콤 '89때보다 참가회사와 전시관 규모를 확대해 가는 한편 ISDN 등 첨단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전기통신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 텔레콤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지역의 전기통신전시회로서 이 행사의 정식 명칭은 아시아 전기통신 전시회 및 학술대회(Asia Telecommunication Exhibition and Forum)이나 편의상 아시아 텔레콤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1985년 제1회 아시아 텔레콤 '85 이후 금년 아시아 텔레콤 '93까지 모두 세차례 개최되었는데, 그동안 전기통신분야의 기술혁신을 반영하듯 양적 규모나 질적 수준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아시아 텔레콤은 지역적 규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중있는 행사로 성장하였다.

[아시아 텔레콤 개최 연황]

구 분	개최년도	장 소
제 1 회	1985	싱가포르 Hyatt Hotel
제 2 회	1989	싱가포르 Stanford Hotel
제 3 회	1993	싱가포르 국제무역센터

이와 같이 아시아 텔레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시회나 학술대회 등 공식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행사 기간 중 개최되는 수많은 리셉션이나 개별회담 등 각종 비공식 접촉행사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사업, 제품구매 상담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의 성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2. 아시아 텔레콤 '93 개최와 한국참가연황

제3회 아시아 전기통신 전시회 및 학술대회가 「Telecommunity : the Next Era of Growth」를 주제로 1993년 5월 17일에서 5월 22일까지 싱가포르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되었다.

5월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제무역센터 11층 대강당에서 시작된 개막식은 싱가포르 대통령, 각국의 체신부장·차관 등 주요 인사 및 전기통신 분야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대통령의 개회사, ITU 사무총장과 싱가포르 전기통신청 회장의 축사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신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개막식 직후에 전시회 개막 테이프 컷팅과 주요 귀빈들의 전시관 순시가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27개국 371개 업체가 전시관을 설치하여 각종 첨단기술 및 장비를 선보였으며, 세계통신관련 주요인사 1,000여명을 비롯한 약 32,000여명이 이 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ITU는 공식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1989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아시아 텔레콤 '93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전기통신전시회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통신관련 업체들이 각자 자기들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각종 첨단 통신장비 및 기술을 전시, 소개하는 행사이다.

아시아 텔레콤 '93에서는 22,000㎡의 거대한 국제무역센터 전시장에 세계 27개국 371개 업체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간의 기술진보를 반영한 영상회의, B-ISDN, ATM교환기, 광교환기,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등 첨단 통신기기를 전시하여 세계각국의 관람객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 텔레콤 '89개최시부터 전시관을 설치했던 한국은 이번 아시아 텔레콤 '93에서는 한국통신 등 10개 업체가 참가하여 국제무역센터내 HALL 3에 569㎡규모의 한국관을 설치하고, 우리자체 기술로 개발한 각종 통신장비를 전시하였다.

한국통신등 3개업체의 한국 개별관과 대한전선 등 4개 업체의 한국공동관 및 삼성전자 등 2개업

체의 독립전시관으로 구성된 한국관에는 ISDN, 광통신장비 등 첨단 통신기기를 전시하여 호평을 받았는데, 행사기간 중 25,000명의 관람객이 한국관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전기통신학술대회

아시아 텔레콤 '93행사의 하나로 개최되는 전기통신학술대회(Forum)은 정책, 기술, 규제, 경제 등 4개의 심포지움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는데 한국은 경상현재신부차관의 정책심포지움 연설 등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4개의 심포지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책 심포지움에는 아시아 지역 12개국의 통신관련 장·차관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 인사 및 각국 통신사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경상현재신부차관은 5월19일 개최된 정책 심포지움에서 「농어촌 통신수요 충족을 위한 정부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약 15분간 연설하였다.

(3)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텔레콤 '93은 세계각국 전기통신 관련 주요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세계적인 전기통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국제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시장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도국들이 최근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세계적인 통신사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 텔레콤 행사에서도 선진 통신사업체간 이 지역 시장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엿볼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점차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전기통신 전시회에 참여규모를 확대하고 첨단 장비를 개발하여 전시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고, 관련통신기기의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